

中-韓 언어접촉과 어휘 차용의 새 국면*

— 5종 일간지의 중국어 차용어 표기를 중심으로

梁世旭**

【목 차】

1. 머리말
2. 中-韓 언어접촉과 어휘 차용
 - 1) 전통시기 中-韓 언어접촉과 어휘 차용
 - 2) 근대 이후 中-韓 언어접촉과 어휘 차용
3. 5종 일간지의 중국어 차용어 표기 양상과 그 문제점
 - 1) 5종 일간지의 중국어 차용어 표기 양상
 - 2) 중국어 차용어 표기의 문제점
4. 맺음말

1. 머리말

이 글은 최근 3년 동안 5종 일간지의 기사에서 사용된 중국어 차용어의 표기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中-韓 언어접촉과 어휘 차용의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¹⁾

언어와 언어는 언어접촉(language contact)을 통하여 교류하고 서로의 언어에 간섭하기 마

* 이 논문은 “한중언어문화교섭”을 주제로 2014년 5월 24일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개최된 “제35회 중국어 문학회 춘계국제학술대회”의 발표문을 기초로 작성되었다. 2012년 이후 「중국뉴스스크랩」이라는 제목으로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매일경제신문」·「한겨레신문」 등 5종 일간지의 중국 관련 뉴스스크랩을 매주 2회씩 제공해준 한중우호협회에 깊이 감사드린다.

** 仁濟大學校 中國學部 교수 (dhamma@inje.ac.kr)

1) 5종 일간지는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매일경제신문」·「한겨레신문」으로, 한중우호협회(회장 박삼구, <http://www.korea-china.or.kr>)에서 회원들에게 매주 제공하는 「중국뉴스스크랩」의 최근 3년(2012.05 ~ 2015.04) 동안의 자료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中-韓 언어접촉’은 한국어와 중국어의 언어접촉이란 측면에서 ‘韓-中 언어접촉’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으나, 중국어에서 한국어로의 어휘 이동이 압도적이라는 사실을 반영하여 ‘中-韓 언어접촉’으로 표현하기로 한다.

련이다. 이질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공동체와의 직, 간접적인 교류와 간섭을 통해 이루어지는 언어접촉은 언어 체계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요인의 하나가 된다. 특히 위세(prestige)가 큰 언어와의 언어접촉은 상대적으로 위세가 작은 언어의 내부 체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²⁾ 차용어는 이러한 언어접촉의 산물이다.³⁾

한국어와 중국어는 두 천년기가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인 언어접촉을 유지하였다. 한반도와 중원은 두 문명 사이의 물매가 워낙 가팔랐으므로, 역대로 중국어는 한국어에 큰 영향을 미쳤다. 물론 한국어는 중국어 이외에도 몽골어, 일본어, 영어의 영향을 차례로 받았다.⁴⁾ 한국어는 ‘元 간섭기’라고 부르는 13세기 후반부터 14세기 전반까지 몽골어의 영향을 받았다. 당시 고려에서는 몽골어가 크게 유행하여 많은 몽골어들이 고려어에 유입되어 사용되었다.⁵⁾ 19세기 말부터 일제 강점기를 거치는 동안 일본어가 한국어에 큰 영향을 미쳐 현재까지 많은 일본어 차용어가 한국어에서 사용되고 있고,⁶⁾ 20세기 중반 이후로는 영어가 한국어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어에는 많은 일본어가 섞이게 되었고, 영어의 차용은 지금도 계속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긴 안목으로 보면 중국어만큼 한국어에 지속적이고, 압도적인 영향을 미친 언어는 없다. 계통이 전혀 다른 두 언어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영향을 주고받은 일은 세계 언어사에서 유사한 다른 예를 찾기 어려울 만큼 독특한 현상이다.

1992년 8월 24일, 北京 釣魚臺에서 한국과 중국은 역사적인 「외교관계 건립에 관한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연합공보」에 공동으로 서명하고 정식 국교를 수립하였다. 한·중 수교를 전후로 한 세기 가량 단절되었던 한국과 중국 두 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교류가 복원되면서 ‘중-한 차용어’⁷⁾는 빠르게 한국어 어휘 체계 안으로 편입되고 있다.

-
- 2) 물론 위세가 큰 언어라고 위세가 작은 언어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가령 영어는 세계 모든 언어에 크게 간섭했지만 라틴어·그리스어·켈트어·프랑스어·스칸디나비아어·스페인어·포르투갈어·이탈리아어·독일어 등 영어와 접촉한 언어들에서 유입된 借用語가 영어의 어휘의 다수를 차지하고, 영어의 토착어라 할 수 있는 앵글로-색슨(Anglo-Saxon) 계통의 어휘는 일부에 불과하다. Fromkin & Rodman(1998: 460)에 따르면, 영어에서 상용되는 대략 20,000개의 어휘 가운데 3/5 정도가 차용어이다. 영어의 형성은 借用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이다. 1066년 노르만 정복(Norman conquest) 이후 시작된 프랑스어의 침략과 르네상스를 통해 유럽에서 영국으로 전해진 라틴어-그리스어의 영향은 특히 크다.”(양세욱(2006: 46)에서 수정 인용)
- 3) ‘차용어’는 ‘외래어’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는 예가 많지만, 同化의 정도에 따라 두 용어를 구분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모국어의 언어체계에 동화되어 화자들에게 이질감이 없는 어휘가 借用語이고, 다른 언어로부터 유입되어진 어휘로 본래의 발음과 억양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유입되어진 언어체계에 동화되지 않은 어휘가 外來語가 된다. 그러나 김건환(2003)에 따르면, 차용어와 외래어의 기준은 ‘동화 정도’의 차이이므로 실제로 차용어와 외래어를 구분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또 차용어를 포함하는 상위 개념으로 외래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외래어를 포함하는 상위 개념으로 차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 글에서 차용어는 외래어를 포함하는 상위 개념, 즉 모국어의 언어체계에 동화된 정도와 무관하게 외국어에서 한국어로 유입되어 사용되고 있는 모든 어휘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 4) 이익섭·이상익·채 완(1997: 148)은 한국어에 영향을 미친 언어로 여진어와 만주어를 추가로 언급하고 있으나, 지명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살아남은 차용어가 거의 없으므로 따로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 5) 현재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는 매의 일종인 ‘보라’와 ‘송골’, 보라매의 색깔인 ‘보라’, 임금의 음식인 ‘수라’, 제주도에서 작은 산을 가리키는 ‘오름’ 등은 당시 고려어에 유입되었던 몽골어의 잔영이다.
- 6) 이한섭(2014)은 1880년대 이후 일본어에서 한국어로 차용된 어휘 3,634개를 수록하고 있다.

이 글은 최근 3년 동안 주요 일간지에 사용된 중국어 차용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 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중-한 언어접촉과 어휘 차용의 새 국면이 전개되고 있음을 서술하고자 한다. 이 글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2장에서 최근의 중국어 차용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중-한 언어접촉과 어휘 차용의 역사를 선행연구들에 기대어 개관하고, 제3장에서는 최근 3년 동안 5종 일간지의 기사에서 사용된 중국어 차용어 표기의 양상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2. 中-韓 언어접촉과 어휘 차용

중국어와 한국어는 2천년 가까이 지속적인 언어접촉을 유지하였고, 중국어는 한국어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국어 어휘에서 한자어가 차지하는 비율이 50-70%에 이르고,⁸⁾ 이 한자어의 대부분이 중국어 차용어라는 사실은 한국어와 중국어 사이의 불균형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준다.⁹⁾ 영어와 접촉한 반세기 동안 한국어가 영어에서 받은 영향의 크기를 고려하면, 두 천년 기 동안 파스 시니카(Pax Sinica)를 구가한 대국과 국경을 마주한 작은 나라의 언어가 소멸되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사실 자체가 경이로울 정도이다.

이 장에서는 중-한 언어접촉과 어휘 차용의 역사를 전통시기와 근대 이후로 양분하여 통시적으로 개관하기로 한다.

1) 전통시기 中-韓 언어접촉과 어휘 차용

- 7) ‘중-한 차용어’는 중국어에서 한국어로 유입된 차용어라는 의미로 사용하기로 한다.
- 8) 한국어 어휘에서 한자어가 차지하는 비율은 조사 대상 어휘의 범위와 한자어의 선정 기준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도출될 수밖에 없다. 가령 『우리말 큰사전』(한글학회 편, 1957년)에 수록된 표제어 164,125개 가운데 차용어는 89,513개로 그 비율은 54.5%이며, 이 가운데 한자어는 85,527개로 그 비율은 52.1%이다.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 편, 1999년)에 수록된 표제어 363,424개 가운데 한자어는 252,278개로 그 비율은 69%이다.
- 9) 물론 고유 한국어가 중국어에 영향을 미친 예가 있을 가능성은 있다. 이기문(1991: 239)은 ‘毛施’와 ‘參’(또는 ‘蔘’)이 각각 우리말 ‘모시’와 ‘삼’에서 유래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고, 김완진(1970)은 ‘熊’, ‘驕’, ‘龜’가 각각 우리말 ‘곰’, ‘기러기’, ‘거북’에서 차용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국어 어휘가 한국어에서 차용되었는지 여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문헌자료는 아직 없다. 1992년 한-중 수교를 전후로 ‘蔘鷄湯’ 등 한식 메뉴의 명칭이 중국어에서 사용되고 있다. 2012년 말, 농림수산식품부가 김치의 중국어 명칭을 ‘辛奇’로 지정하고 이를 적극 보급하고 있다. 또 중국 포털사이트 ‘百度’의 ‘百度百科’는 ‘歐巴’라는 표제어를 싣고 있다. 이에 따르면, “歐巴”는 한국어의 ‘오빠’라는 의미로, ... 중국 인터넷 용어에서 이 호칭은 상대방에 대한 호감 또는 친근함을 표시”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관영 ‘環球網’(2014/03/27)은 “서울에 가면 전 직원이 ‘歐巴’인 식당이 있는데 여성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고 보도하면서, 부연설명이 없이 ‘歐巴’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조선일보』(2014/03/28)는 이 기사를 소개하면서, “텐진(天津)에 있는 식당 ‘오빠가 왔다(歐巴來了)’를 방문했는데, 기다리느라 1시간이나 서 있었다”는 중국 네티즌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최근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상속자들’이 중화권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면서 생겨난 현상이다. 억척스럽고 생활력이 강한 여성을 뜻하는 ‘阿祖媽’도 이런 어휘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이들 어휘들이 진정한 한-중 차용어로 정착할지 여부는 향후 추이를 지켜보아야 한다.

심재기(2000: 49)는 漢字語를 ‘起源의 系譜’에 따라 ‘(1) 중국 고전에서 연유하는 것 ; (2) 중국을 경유한 불교경전에서 나온 것 ; (3) 중국의 口語, 즉 白話文에 연유하는 것 ; (4) 일본에서 만든 것 ; (5)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만든 것’ 등으로 세분하고 있다. 이 한자어들을 어휘 생산 주체에 따라 다시 분류하면, ‘(1)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만든 한자어 ; (2) 중국에서 만들어진 한자어 ; (3) 일본에서 만들어진 한자어’로 삼분할 수 있을 것이다.

근대 이후에 해당하는 ‘(3) 일본에서 만들어진 한자어’를 제외하면, 전통시기에 도입되어 한국어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자어들은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만든 한자어와 중국어에서 만들어진 한자어로 양분할 수 있다. 또 한국에서 만들어져 한국에서만 사용되는 극히 일부의 한자어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한자어는 중국 고전을 매개로 한 중-한 차용어인 셈이다.¹⁰⁾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자어들 가운데 『論語』·『孝經』·『文選』에 보이는 어휘 목록의 일부는 아래와 같다.

군자(君子)·소인(小人)·장난(作亂)·제자(弟子)·여력(餘力)·부모(父母)·호학(好學)·이립(而立)·불혹(不惑)·이단(異端)·형제(兄弟)·문헌(文獻)·기왕(既往)·시작(始作)·무도(無道)·목탁(木鐸)·천하(天下)·문장(文章)·호학(好學)·불행(不幸)·단명(短命)·중도(中道)·귀신(鬼神)·박학(博學)·대과(大過)·안색(顔色)·종사(從事)·부족(不足)·부인(婦人)·음식(飲食)·의복(衣服)·궁실(宮室)·종묘(宗廟)·조정(朝廷) / 지천명(知天命)·사무사(思無邪)·역부족(力不足)·집대성(集大成) / 문일지십(聞一知十)·과유불급(過猶不及)·교언영색(巧言令色)·극기복례(克己復禮)·단사표음(簞食瓢飲)·군자불기(君子不器)·살신성인(殺身成仁)·술이부작(述而不作)·온고지신(溫故知新)·요산요수(樂山樂水)·일이관지(一以貫之)·화이부동(和而不同)·후생가외(後生可畏)·전전궁궁(戰戰兢兢) (『論語』)

한거(閑居)·선왕(先王)·화목(和睦)·상하(上下)·신체(身體)·부모(父母)·입신(立身)·후세(後世)·백성(百姓)·사해(四海)·부귀(富貴)·사직(社稷)·제후(諸侯)·법복(法服)·종묘(宗廟)·제사(祭祀)·근신(謹身)·절용(節用)·서인(庶人)·군자(君子)·만국(萬國)·환심(歡心)·처자(妻子)·화평(和平)·재해(災害)·덕행(德行)·성인(聖人)·천지(天地)·명당(明堂)·슬하(膝下)·천성(天性)·군신(君臣)·막대(莫大)·막중(莫重)·타인(他人)·불경(不敬)·연후(然後)·불효(不孝)·중심(中心)·장유(長幼)·수신(修身)·귀신(鬼神)·신명(神明)·엄부(嚴父)·자애(慈愛)·공경(恭敬)·효자(孝子)·춘추(春秋) / 만천하(滿天下) (『孝經』.. 심재기 2000: 43에서 인용)

오락(娛樂)·반복(反覆)·풍속(風俗)·학교(學校)·식물(植物)·동물(動物)·풍년(豐年)·지세(地勢)·선명(鮮明)·영롱(玲瓏)·물산(物産)·경영(經營)·생명(生命)·폭포(瀑布)·영험(靈驗)·유람(遊覽)·염전(鹽田)·애매(曖昧)·세속(世俗)·태양(太陽)·빈궁(貧窮)·탄식(歎息)·인적(人迹)·변화(變化)·맹수(猛獸)·비애(悲哀)·유예(猶豫)·몽상(夢想)·산만(散漫) (『文選』.. 심재기 2000: 43에서 인용)

한자어 가운데는 이미 한국어에 깊숙이 뿌리를 내려 한국어 연중들이 한자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예들도 있다. 이런 한자어들을 조세용(1991)의 ‘漢字語系 歸化語’라는 용어를

10) 한국에서 생산되고 사용되는 한자어의 예로 ‘감기(感氣)·신열(身熱)·환장(換腸)·고생(苦生)·식구(食口)·권술(眷率)·편지(片紙)·도령(道令)·사돈(查頓)·양반(兩班)·훈장(訓長)·처남(妻男)·제수(弟嫂)·월세(月貰)·동태(凍太)·황태(黃太)’ 등을 들 수 있다.

수정하여 ‘歸化漢字語’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귀화 한자어는 ‘한자어에서 유래한 어휘 가운데 한자의 표준음과 다른 음을 포함하여, 한국어 언중에게 고유어로 인식된 한자어’로 정의할 수 있다.¹¹⁾ 이러한 귀화한자어들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기원한 한자어이다. 귀화한자어들의 예는 아래와 같다.¹²⁾

나(아 : 我) / 너(이 : 爾) / 잎(엽 : 葉) / 게(해 : 蟹) / 눈(안 : 眼) / 설(세 : 歲) / 실(사 : 絲) / 맛(미 : 味) / 붓(필 : 筆) / 먹(묵 : 墨) / 베(포 : 布) / 되(두 : 斗) / 징(정 : 鉦) / 모(묘 : 苗) / 쥐(서 : 鼠) / 설(세 : 歲) / 실(사 : 絲) / 탈(수 : 祟) / 맛(미 : 味) / 바람(풍 : 風)

짐승(중생 : 衆生) / 사랑(사량 : 思量) / 까치(건작 : 乾鵲) / 조카(족하 : 足下) / 벼락(벽력 : 霹靂) / 서랍(설함 : 舌盒) / 과녁(관혁 : 貫革) / 술래(순라 : 巡邏) / 가게(가가 : 假家) / 재미(자미 : 滋味) / 쑥맥(숙맥 : 菽麥) / 처마(침아 : 簷牙) / 가난(간난 : 艱難) / 장난(작난 : 作難) / 조용(중용 : 從容) / 질구(지구 : 杵臼) / 설매(설마 : 雪馬) / 해장(해정 : 解醒) / 수저(시저 : 匙箸) / 김치(침채 : 沈菜) / 제육(저육 : 豬肉) / 수육(숙육 : 熟肉) / 가지(가자 : 茄子) / 대추(대조 : 大棗) / 감자(감저 : 甘藷) / 나막(나박 : 蘿蔔) / 겨자(개자 : 芥子) / 고추(고초 : 苦椒) / 후추(호초 : 胡椒) / 앵두(앵도 : 櫻桃) / 자두(자도 : 紫桃) / 호두(호도 : 胡桃) / 상추(생채 : 生菜) / 과일(과실 : 果實) / 농어(노어 : 鱸魚) / 붕어(부어 : 鮪魚) / 잉어(리어 : 鯉魚)

인적 왕래를 통한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도 한국어는 중국어의 영향을 받아들였다. 『高麗史』 「百官志」에는 忠烈王 2년(1276년)에 參文學事 金垵의 건의로 通文館을 설치하여 40세 미만의 사람들에게 ‘漢語’를 가르쳤다는 기록이 등장한다.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사신들의 왕래가 잦아지면서 중국어 譯官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적인 교육기관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통문관은 고려 말에 司譯院으로 개편되어 조선시대까지 통역 및 번역에 관한 일을 담당하였다. 『老乞大』와 『朴通事』는 통문관과 사역원에서 역관을 가르치던 교재로,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중국어 교재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중국어를 매개로 한 직접적인 언어접촉을 통해 유입된 차용어의 예로, 이기문(1965: 195)은 아래의 예들을 제시한 바 있다.

미라(蜜蠟)·탕건(唐巾)·후시(護膝)·상투(上頭)·토시(托슈, 套袖)·비단(匹段)·무명(木棉)·다홍(大紅)·사탕(砂糖)·수수(葡萄)·산판(算盤)¹³⁾

문헌을 통해 유입된 귀화한자어인지, 중국어를 매개로 한 직접적인 언어접촉을 통해 유입된 차용어인지 불분명한 사례들도 있다. ‘郭禿’에서 유래된 ‘꼭두’는 이러한 사례의 하나이다.

11) 조세용(1991)은 ‘漢字語系 歸化語’라는 용어를 제안하면서, ‘성(형:兄)·송년(흉년:凶年)·생양(생강:生薑)’ 등의 방언 어휘, ‘삼촌(삼촌:三寸)·손주(손자:孫子)·금실(금슬:琴瑟)·부주(부조:扶助)·사둔(사돈:査頓)·참시(잠시:暫時)’ 등의 비속어는 한자어계 귀화어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12) 아래의 예들은 대부분은 조세용(1991)에서 인용하였다. 부분적으로 최영애(1991)와 엄익상(2006)에서 인용한 사례들과 필자가 제안한 사례들도 포함되어 있다.

13) 이 예들이 중국어를 매개로 한 직접적인 언어접촉을 통해 유입된 차용어인지 여부에 대한 논증은 다른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꼭두의 어원은 중국 漢末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유행하던 인형극에 등장하는 ‘郭秃’에서 꼭두가 비롯됐다. 당시 중국에선 ‘대머리 郭氏’라는 뜻의 ‘郭秃’ 캐릭터가 나와 웃기로 춤추고 노래하는 인형극이 크게 유행했다. 그러면서 ‘郭秃’이 인간상을 가리키는 일반명사로 자리 잡았고 이 단어가 한국에까지 전파돼 ‘꼭두’가 됐다.¹⁴⁾ 이 ‘꼭두’는 ‘곽독(郭秃)’의 귀화한자어일 가능성도 있고, 중국어의 직접 차용일 가능성도 있다. 이밖에 다른 예들은 아래와 같다.

띠(대 : 帶) / 배추(백채 : 白菜) / 수수(촉촉 : 蜀蜀) / 시금치(적근채 : 赤根菜) / 잉꼬(앵가 : 鸚哥) / 창자(장자 : 腸子) / 사탕(사당 : 砂糖) / 설탕(설당 : 雪糖) / 상투(상두 : 上頭) / 탕건(당건 : 唐巾) / 피리(필률 : 鬍篋) / 후시(호슬 : 護膝) / 띠(대 : 帶) / 무명(목면 : 木棉) / 미역(목욕 : 沐浴) / 나인(내인 : 內人) / 꼭두(곽독 : 郭秃)

2) 근대 이후 中-韓 언어접촉과 어휘 차용

근대 이후 중-한 차용어의 대부분은 이른바 ‘근대 번역어’이다. 근대 번역어는 한자를 매개로 번역된 서양의 근대 어휘이다. 동아시아는 번역을 통해 서양을 이해하고 근대라는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분투하였으며, 번역은 근대 동아시아에서 근대를 형성해가는 중요한 과정이자 방법이었다. 동아시아의 근대가 ‘번역된 근대(translated modernity)’인 이유이다.¹⁵⁾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으로 시작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前文」(1948년 제정, 1987년 개정)에 등장하는 ‘역사(歷史)·전통(傳統)·민주(民主)·이념(理念)·개혁(改革)·정의(正義)·인도(人道)·민족(民族)·사회(社會)·자유(自由)·질서(秩序)·정치(政治)·경제(經濟)·문화(文化)·권리(權利)·의무(義務)·국민(國民)·세계(世界)·평화(平和)·인류(人類)·행복(幸福)’ 등의 어휘는 근대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거나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다.

서양에서 건너온 새로운 개념을 담은 어휘들을 한자어로 번역하는 일은 중국과 일본이 담당하였다. 중국과 일본은 독자적으로 개념어들의 번역을 시도하기도 하였지만, 이 과정에서 서로를 참조하고 영향을 주고받았다. 중국과 일본은 서로를 참조하고 영향을 주고받았으므로, 번역어의 産地를 정확히 밝혀내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도 드물지 않다. 중국에서 이루어졌든 일본에서 이루어졌든 언어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번역은 동아시아의 공동 문자였던 한자와 중국 고전을 매개로 진행된 작업이었다. 한국은 번역어의 생산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중국과 일본에서 진행된 성과들에 무임승차에 가까운 편승을 하였다. 이 번역어들은 한자와 동아시아 공동문어를 기반으로 국경을 넘나들며 새로운 어휘체계를 형성하였다.¹⁶⁾

‘근대 번역어’ 이외에 근대 이후 중-한 차용어의 두드러진 유형의 하나는 중국음식과 관련

14) ‘꼭두’의 어원은 『조선일보』(2013/10/05)를 수정, 인용하였다. 한편 ‘人形’이란 단어는 일본어로, 일제 강점기에 人形이 꼭두를 대신하면서, ‘꼭두’는 ‘남의 조종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안 좋은 어감을 지닌 ‘꼭두각시’라는 말로 주로 쓰였다.

15) ‘번역된 근대’(translated modernity)는 Liu(1995)가 중국의 근대 형성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한 핵심적인 개념이자, 서명의 일부이기도 하다.

16) 이 단락은 필자의 선행연구 양세욱(2009a ; 2012)을 요약, 정리한 내용이다.

된 차용어이다.¹⁷⁾ 한국과 중국의 공식적인 외교관계가 단절된 한 세기에 가까운 기간 동안 중국음식은 중-한 언어접촉의 거의 유일한 통로였다. 근대 이후 중-한 차용어 가운데 유독 음식과 관련된 차용어가 많은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1882년 壬午軍亂을 기점으로 淸의 군대와 상인·노동자들이 朝鮮에 장기 체류하면서 본격적으로 한국에 유입되기 시작한 중국음식은 근현대 한-중교류의 産物이며, 이 과정에서 형성된 한국의 중국음식 이름은 한국어와 중국어의 언어접촉 과정을 살필 수 있는 흥미로운 언어 자료이다.”(양세욱 2009d: 149) 한국의 중국음식 이름은 대부분 중국어에서 사용되던 어휘들이 음운의 조정을 거쳐 한국어로 귀화한 차용어이다.

중국음식 이름이 한국어로 유입되는 양상은 다양하다.¹⁸⁾ 볶음밥(炒飯)·꽃빵(花卷) 등은 번역어로, 만두(饅頭)·냉채(冷菜)·양장피(兩張皮)·팔보채(八寶菜)·오향장육(五香醬肉)·마파두부(麻婆豆腐) 등은 한자음으로, 유산슬(溜三絲兒)·간풍기(乾烹鷄)·라조기(辣椒鷄)·유니짜장(肉泥炸醬)·빼갈(白乾兒)·지단(鷄蛋)·라면(辣麵) 등은 중국음으로 한국어에 정착했다.¹⁹⁾ 또 짜장면·기스면·울면·탕수육·라조육 등은 중국음과 한자음이 결합된 이름이고, ‘간소새우·간풍새우·짜장밥·짬뽕밥’ 등은 중국음에 고유어가 결합된 이름이다.²⁰⁾ ‘춘장’은 ‘蔥醬’이 ‘cōngjiāng」춘장」춘장」춘장」의 음운 변화 과정을 거쳐 한국어에 정착한 차용어이다.²¹⁾

3. 5종 일간지의 중국어 차용어 표기 양상과 그 문제점

근대 번역어와 소수 중국어 원음의 직접 차용을 제외하면 근래까지 한국어에 영향을 미친

- 17) 음식명과 관련된 중-한 차용어에 대한 개척적인 연구로는 엄익상(1997)이 있다. 양세욱(2009d) 역시 ‘춘장·짬뽕·티’를 중심으로 음식명과 관련된 중-한 차용어의 어원을 분석한 바 있다.
- 18) 음식 관련 중국어 차용어의 유입 경로는 세 가지로 귀납할 수 있다. 짜장면(炸醬麵), 기스면(鷄絲麵), 탕수육(糖醋肉), 라조기(辣椒鷄), 간소샤(乾燒蝦), 류산슬(溜三絲) 등은 중국어와의 직접적인 언어접촉을 통해 한국어로 유입된 예이고, 짬뽕(チャンボン「食飯 또는 攪烹), 라면(らめん「拉麵), 우동(うどん「饅飩) 등은 중국어가 일본어를 경유해 한국어로 유입된 예이며, 티(tea「茶), 셰프(chef「師傅), 케첩(ketchup「茄汁), 딤섬(dim sum「點心) 등은 중국어가 유럽어를 경유해 한국어로 정착한 예이다.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서술은 양세욱(2009c)을 참고할 것.
- 19) ‘지단’은 엄익상(2006)을 참고하였다. ‘고명으로 올리는 계란’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지단’이 근대 이후의 중-한 차용어인지 여부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라면’의 어원은 중국어 ‘라멘’(拉麵)으로, 일본어 ‘라멘’(ラーメン)을 거쳐 한국어에 ‘라면’으로 정착하였다. 일본의 인스턴트 라멘을 라면이라는 이름으로 국내에 도입한 때는 인스턴트 라멘이 개발에 성공한지 5년이 지난 1963년 9월 15일의 일이다. 그밖에 ‘군만두·물만두·부추잡채·고추잡채’는 고유어에 한자음이 결합된 이름이고, ‘잡채밥·짬뽕밥·잠탕밥’은 한자음에 고유어가 결합된 이름이다.
- 20) 중국음식 이름이 한국어로 유입되는 양상에 대한 서술은 양세욱(2009d: 163)을 수정하여 인용하였다.
- 21) 춘장은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이름으로, 중국에는 이런 이름이 없다. 중국에는 없는 명칭인 ‘춘장’이 봄에 담그는 장이라는 의미의 ‘春醬’에서 유래했는지, 牯麵醬의 약어인 ‘牯醬’에서 유래했는지, 아니면 대파를 찍어먹는 장이라는 의미의 ‘蔥醬’에서 유래했는지에 대해 출처가 불분명한 다양한 견해들만 제시될 뿐 정확한 어원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고찰이 진행되지 않았다. 양세욱(2009d)은 음운 변화 과정의 타당성과 한-중 음식 교류의 역사적 배경을 근거로, 춘장이 ‘蔥醬’에서 유래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중국어 차용어의 대부분은 문헌을 통해, 특히 四書五經으로 대표되는 儒家經典을 통해 한국어에 유입되었다. 그러나 한-중 수교를 전후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국어에 유입된 중국어 차용어는 여러 측면에서 이전의 차용어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²²⁾

이 장에서는 최근 3년 동안 5종 일간지의 기사에서 사용된 중국어 차용어 표기의 양상 및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한다.²³⁾

1) 5종 일간지의 중국어 차용어 표기 양상

“한국과 중국 두 나라의 교류는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20여 년 동안 거의 모든 영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다. 두 나라의 교역 규모가 34배(63.9억 불 → 2,206억불), 인적 교류가 49배(13만명 → 641만명), 재중 한국유학생 수가 189배(323명 → 68,000명) 증가한 것 등이 그 구체적인 사례이다.”(양세욱 2013: 113~114) 2013년에는 전체 외국인 입국자 1067만명 가운데 중국인 비율이 36.7%를 차지하여, 한국을 찾은 중국인 수가 사상 처음으로 일본인을 앞질렀다.²⁴⁾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 3명 중 1명이 중국인인 셈이다. 출판 영역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전쟁 이후 중국 관련 국내 출판은 매우 제한적인 영역에서 진행되다가, 한-중 수교를 전후로 중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후 거의 매년 20~30%를 웃도는 급성장의 추세를 이어오고 있다.²⁵⁾

이와 같이 중국과의 직접적인 교류와 언론 및 출판을 매개로 하는 간접적인 교류의 급증으로 중-한 언어접촉과 어휘 차용은 한-중 수교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우선 중-한 차용어의 영역이 다양화되었다. 근대 이전은 물론이고 근대 이후 한-중 수교 이전까지의 차용어는 철학과 사상 영역에 속하는 추상명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정치·경제·사회·문화 영역에 속하는 차용어는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한-중 수교를 전후로 한국과 중국 두 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을 포함한 모든 영역의 교류가 이전과는 다른 차원으로 확대되면서 다양한 영역의 중-한 차용어가 한국어로 유입되고 있는 것이다.

‘대자보(大子報)·다오위타이(釣魚臺)·개혁개방(改革開放)·남순강화(南巡講話)·서부대개발(西部大開發)·홍위병(紅衛兵)·일국양제(一國兩制)·하나의 중국 정책(一個中國政策)·중국특색의

22) 한-중 수교는 한 세기 가까이 단절되었던 두 나라의 공식 외교관계를 복원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한-중 수교 이전부터 제한적으로나마 두 나라의 교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으므로, 한-중 수교 자체가 중-한 언어접촉과 어휘 차용의 새 국면이 전개되는 절대적인 분기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본문에서 언급하는 ‘한-중 수교 이후’는 한-중 수교를 전후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를 의미함을 밝혀둔다.

23) 이하에서 제시된 중-한 차용어들은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매일경제신문」·「한겨레신문」 등 5종 일간지의 최근 3년 동안의 중국 관련 기사에서 주로 수집하였고, 중국 관련 도서 및 다른 매체를 통해 접한 차용어들도 일부 추가되었다.

24) 법무부의 ‘2013년 출입국 현황’에 따르면, 작년 승무원을 제외하고 한국을 찾은 중국인은 전년 273만명보다 43.6% 증가한 392만명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일본인 입국자는 271만명으로 전년 349만명보다 22.4% 감소했다.

25) 1992년부터 2012년까지 출간된 중국 관련 단행본 수의 변화 추이는 양세욱(2013)를 참고하였다.

사회주의(中國特色社會主義)·일가구일자녀정책(獨生子女政策)·양회(兩會) 등은 한-중 수교 이전부터 사용되어오고 있는 정치 영역의 차용어이며, ‘중국몽(中國夢)’ 또는 이를 번역한 ‘중국의 꿈’, 중국 고위관료의 자녀를 의미하는 ‘관얼다이(官二代)’ 등은 習近平 체제 등장 이후 빈번하게 출현하는 정치 영역의 차용어이다.

최근 중국 관련 뉴스에서 경제 영역의 차용어는 출현빈도가 높을 뿐 아니라 중국에서 신조어가 등장하자마자 국내에 곧바로 소개되는 신속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이는 중국에 대한 높은 경제 의존도에서 비롯되는 중국 경제에 대한 큰 관심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 경제의 새로운 상태를 의미하는 ‘신창타이(新常態. 또는 영어 번역어인 ’뉴 노멀‘), 上海 거래소와 香港 거래소의 교차 거래를 의미하는 ‘후강통(滬港通)’, 정보기술(IT)·인터넷·모바일 등 기술 정보력 기반의 혁신적인 창업자를 의미하는 ‘창커(創客)’, 중국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이어지는 육상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의미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등이 이러한 차용어이다. 이러한 경제 영역의 차용어들은 ‘특구(特區)·경제특구(經濟特區)·개체호(個體戶)·철밥통(鐵飯碗)·경리(經理)·총경리(總經理)·동사장(董事長)’ 등 한-중 수교 이전부터 사용되어오고 있는 차용어, ‘은련(銀聯)·월광족(月光族)·푸이다이(富一代)·푸하오(富豪)·푸얼다이(富二代)·홍얼다이(紅二代)’ 등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차용어와 함께 중국 관련 뉴스에서 빈번하게 출현하고 있다.

또 사회 영역의 차용어로는 ‘유커(遊客. 또는 이의 잘못된 표기인 ’요우커‘)²⁶⁾·여유법(旅遊法)·관시(關係)·소황제(小皇帝)·희망공정(希望工程)·동북공정(東北工程)·탐원공정(探源工程)·바링허우(八十后)·주링허우(九十后)·복무원(服務員)·헤이차(黑車)·공한증(恐韓症)·가오카오(高考)·한어수평고시(漢語水平考試)·한반(漢辦)·웨이보(微博)·웨이신(微信)·바이두(百度)·종결자(終結者)’ 등이 자주 출현하고, 문화 영역의 차용어로는 ‘변검(變臉)·쿵푸(功夫)·우슈(武術)·한류(韓流)·혐한류(嫌韓流)·춘지에(春節)·춘완(春晚)·국경절(國慶節)·노동절(勞動節)·홍바오(紅包)·후통(胡同)·야쑤이첸(壓歲錢)·차마고도(茶馬古道)’ 등이 흔하게 보인다. 음식 영역에서도 ‘마파두부(麻婆豆腐)·어향육사(魚香肉死)·궁보계정(宮保鷄丁)·휘귀(火鍋)·동파육(東坡肉)·불도장(佛跳牆)·딴심(點心)·암차(飲茶)·꽃빵(花卷)·춘권(春卷)·리쯔(荔枝)·우롱차(烏龍茶)·보이차(普洱茶)·철관음(鐵觀音)·마오타이(茅台)·취우더우푸(臭豆腐)’ 등 이전의 중국식당에서 볼 수 없던 새로운 메뉴들이 추가되었다.

최근 5종 일간지를 비롯한 중국 관련 매체에 등장하는 중-한 차용어의 또 다른 특징은 중국어 원음 표기가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원음 표기의 증가는 한-중 수교 이후 중국과의 직접적인 교류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지만, 중국어 원음 표기 원칙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언론매체의 영향도 컸다.

최근 한국어에 새롭게 도입된 중-한 차용어는 중국어 원음으로 표기되는 것, 한자음으로 표기되는 것, 번역으로 표기되는 것, 영어를 경과하여 영어 발음으로 표기되는 것 등 네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를 각각 ‘유커’ 유형, ‘종결자’ 유형, ‘철밥통’ 유형, ‘세프’ 유형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유커’ 유형에 속하는 차용어는 중국어 원음에 가깝게 표기된 중-한 차용어이다. ‘유커’는

26) 국립국어원의 「외래어 표기법」(1986)에 따르면, 한어병음 ‘you’는 ‘유’로 표기된다.

중국 관광객의 급증과 함께 최근 가장 빈번히 등장하는 차용어의 하나이다. 중국어 발음은 대체로 1986년에 발표된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되지만, 자의적이거나 「외래어 표기법」과는 다른 표기 원칙에 따라 표기되는 사례들도 있다. ‘유커’ 유형에 속하는 예들은 아래와 같다.

유커(遊客)·다오위타이(釣魚臺)·거티후(个体戶)·인렌(銀聯)·위에광주(月光族)·푸이다이(富二代)·푸얼다이(富二代)·관시(關係)·샤오황띠(小皇帝)·바링허우(八十后)·주링허우(九十后)·헤이차(黑車)·가오카오(高考)·한반(漢辦)·웨이보(微博)·웨이신(微信)·바이두(百度)·쿵푸(功夫)·우슈(武術)·춘지에(春節)·춘완(春晚)·홍바오(紅包)·후통(胡同)·야쑤이첸(壓歲錢)·후강통(滬港通)·신창타이(新常態)·창커(創客)

‘종결자’ 유형에 속하는 차용어는 한국 한자음으로 표기된 중-한 차용어이다. 어떤 한 분야에서 발군의 재능을 가진 사람 또는 지존을 뜻하는 ‘종결자’는 최근 널리 퍼진 유행어이다. ‘終結者’는 영화 「The Terminator」(1984)의 중국어 번역으로 생겨난 신조어였다가, 최근 10년 사이에 한국 언중들 사이에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중국어에서 영화 제목 이외에는 별다른 의미향을 갖지 않는 ‘終結者’가 한국어에서 다른 의미로 사용된 계기는 어느 게임이라는 주장도 있다.²⁷⁾ ‘종결자’와 유사한 어감을 지닌 비속어 ‘끝내준다’도 이 말의 확산에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²⁸⁾ 어휘 차용에서 차용어의 의미가 전이되는 사례는 흔하다.²⁹⁾ ‘유우커’ 역시 중국어에서는 단순히 ‘여행객’이라는 의미이지만, 한국어에서는 ‘중국 여행객’이라는 제한된 의미로 사용된다.

한국 한자음으로 표기된 일부 차용어는 ‘유커’ 유형과 중복하여 출현하기도 한다. 조어대(釣魚臺)·개체호(个体戶)·은련(銀聯)·월광족(月光族)·소황제(小皇帝)·팔십후(八十後)·구십후(九十後)·춘절(春節) 등이 그러하다. ‘종결자’ 유형에 속하는 예들은 아래와 같다.

종결자(終結者)·변검(變臉)·대자보(大字報)·조어대(釣魚臺)·개혁개방(改革開放)·남순강화(南巡講話)·서부대개발(西部大開發)·홍위병(紅衛兵)·일국양제(一國兩制)·특구(特區)·경제특구(經濟特區)·개체호(个体戶)·은련(銀聯)·월광족(月光族)·여유법(旅遊法)·소황제(小皇帝)·희망공정(希望工程)·동북공정(東北工程)·탐원공정(探源工程)·팔십후(八十後)·구십후(九十後)·복무원(服務員)·공한증(恐韓症)·한어수평고시(漢語水平考試)·춘절(春節)·국경절(國慶節)·차마고도(茶馬古道)·일대일로(一帶一路)

‘철밥통’ 유형에 속하는 차용어는 音譯이 아닌 意譯을 통해 한국어에 유입된 중-한 차용어

27) 「네이버 오픈국어」(<http://kin.naver.com/openkr>)에 따르면, ‘종결자’라는 말은 블리자드 게임인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WOW)’에서 2005년에 공개한 공격대 던전인 줄구름의 보스에게서 획득할 수 있는 네테페이글의 ‘물고기종결자’라는 아이템이 그 시초이다. 성능이 뛰어난 낚싯대 아이템인 ‘물고기종결자’는 물고기를 남김없이 다 잡아버린다는 의미이다. 이후 「DC인사이드」의 ‘와우갤러리’에서 이 단어를 즐겨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몇 해 사이에 유행어로 자리를 잡았다.

28) 한편 이 말의 번역으로 추정되는 ‘끝판왕’이라는 말도 최근에 널리 퍼진 유행어이다.

29) 영어의 차용인 ‘킬러(killer)·파이팅(fighting)·다이어트(diet)·원샷(oneshot)·컨닝(cunning)·세일(sale), 치킨(chicken)’ 등이 한국어에서 영어에는 없는 의미향을 갖는 것이 좋은 예이다.

이다. ‘철밥통’이라는 차용어가 언제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중국어 ‘鐵飯碗’의 의역 차용어임이 분명하다.³⁰⁾ 의역 차용어를 차용어에 포함시킬 것인지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한정할 것인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이나, 좁은 의미의 의역 차용어는 음역 차용어와 마찬가지로 언어접촉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차용어의 범주의 포함시킬 수 있다. ‘철밥통’ 유형에 속하는 예들은 아래와 같다.

철밥통(鐵飯碗)·하나의 중국 정책(一個中國政策)·중국 특색의 사회주의(中國特色社會主義)·일가구 일자녀 정책(獨生子女政策)·희망 프로젝트(希望工程)·중국의 꿈(中國夢)

‘셰프’ 유형에 속하는 차용어는 영어를 경과하여 한국어로 유입된 중-한 차용어이다. 최근 음식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빠르게 확산된 단어가 ‘셰프’이다. ‘셰프’는 영어 ‘chef’에서 비롯된 단어이다. 『옥스포드영어사전』(Oxford English Dictionary)에 수록된 어휘 가운데 중국어 차용어로 표기된 어휘는 대략 800여 개이며, ‘chef’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가 홍콩을 ‘香港’의 표준음이 아닌 廣東音 ‘Hong Kong’으로 부르게 된 것이 영어의 영향인 것과 같다. ‘chef’는 ‘師傅’의 廣東 발음 [ʃi fu]에서 차용된 단어이다. 粵菜的 본거지인 廣東은 중국이 서양 세력과 만나는 창구 역할을 담당했던 곳이다. ‘셰프’ 이외에도 ‘케찹’(ketchup 또는 catchup)과 덤섬(dim sum 또는 dim sim) 등도 ‘茄汁’[ke tʃɛp]과 ‘點心’[tim ʃɛm]의 廣東方言이 영어로 정착된 사례이다.³¹⁾

영어의 ‘tea’ 역시 중국어 방언이 영어 차용어로 정착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도 흥미롭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茶 生産地이자 消費地일뿐 아니라 茶文化의 發源地이기도 하다.³²⁾ 영어의 ‘tea’를 비롯하여 세계 대부분 지역의 茶 관련 어휘는 중국의 ‘茶’에서 비롯되었을 뿐 아니라 廣東語의 [tʃa]와 福建語의 [te]로 소급할 수 있다.³³⁾ 다만, 茶 관련 어휘들의 구체적인 전과 경로에 대한 계통수를 그리기까지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이밖에 『옥스포드영어사전』에 수록된 중국어 차용어 가운데는 유독 음식과 관련된 어휘들이 많다. ‘Oolong’(烏龍), ‘Congou’(工夫茶), ‘Bohea’(武夷), ‘Pehoe’ 또는 ‘Pekoe’(白豪) 등도 福建의 茶 이름이 영어로 정착된 사례이다.

‘셰프’ 유형에 속하는 예들은 아래와 같다.

셰프(chef 「師傅」)·케찹(ketchup 또는 catchup 「茄汁」)·덤섬(dim sum 또는 dim sim 「點心」)·티(tea 「茶」)

이상으로 최근 3년 동안 5종 일간지의 중국 관련 기사에 등장하는 중국어 차용어를 중심

30) ‘鐵飯碗’은 巴金의 『寒夜』(1946)에 이미 그 용례가 보이지만(“吃公司的飯? 我們這個不是鐵飯碗啊!”), 개혁개방 초에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31) ‘dim sum 또는 dim sim’은 음운의 측면을 고려할 때, 厦門의 [tiam sim], 潮州的 [tiəm sim]에서 영어를 비롯한 유럽어로 전해졌을 가능성도 있다.

32) 차의 원산지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중국 남부의 雲南省과 四川省 일대가 가장 이른 시기에 차가 재배된 곳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33) 이에 대한 논의는 양세욱(2009d)를 참고할 것.

으로 중국어 차용어 표기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유커’ 유형, ‘종결자’ 유형, ‘철밥통’ 유형, ‘셰프’ 유형으로 분류하여 논의하였다.

2) 중국어 차용어 표기의 문제점

최근 짧은 기간 안에 중국어 차용어, 특히 중국어 원음으로 표기되는 차용어가 급증하면서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중국어 원음 표기의 난맥상은 고유명사 표기에서 먼저 발생하였다.

중국의 인명과 지명을 포함한 고유명사를 한국어로 어떻게 표기할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고, 현재까지도 적지 않은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³⁴⁾ 1980년대 초까지 한자음 표기가 대세를 이루는 상황에서 1986년에 발표된 외래어 표기법에 중국어가 포함되었다. “현지음을 존중”하되 여러 예외를 인정하는 이 정부안은 한동안 큰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한-중 수교를 계기로 점차 확산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 후반부터 각종 언론매체에서 이 표기법을 따르기 시작했다. 1-2세대 지도자 毛澤東과 鄧小平은 ‘마오쩌둥 / 덩샤오핑’보다는 ‘모택동 / 등소평’으로 기억되고, 1989년부터 2003년까지 집권했던 3세대 지도자 江澤民은 ‘강택민’과 ‘장쩌민’이 엇비슷하게 익숙하고, 2003년에 국가주석으로 취임한 胡錦濤는 ‘후진타오’가 ‘호금도’를 압도하는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일 것이다.

중국어 고유명사의 원지음표기가 잘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해석도 있지만, 반대의 해석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언론에서조차, 심지어 동일한 프로그램이나 기사에서조차 원지음 표기와 한자음 표기가 혼용되고 있는 예가 흔하며, 의식적으로 한자음 표기를 주장하고 행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³⁵⁾ 현재 국립국어원의 ‘중국어 표기법’을 가감 없이 따르고 있는 경우는 과연

34) “『적벽대전』(赤壁, 2009)의 감독은 ‘오우삼’이고 ‘양조위, 금성무, 장풍의, 장첸/장진, 조미, 후권/호군, 린즈링/임지령’ 등이 출연하였다. 『매란방』(梅蘭芳, 2009)의 감독은 ‘첸 카이거’이고, ‘여명’이 ‘천재적인 경극배우 매란방’ 역을, ‘장쯔이’가 ‘남장전문배우 맥소동’ 역을 맡았다. 『삼국지-용의 부활』(三國之見龍卸甲, 2008)의 감독은 ‘이인항’이고 ‘유덕화’가 ‘조자룡’ 역을, ‘홍금보’가 ‘나평안’ 역을, ‘매기 큐’가 ‘조조의 손녀, 조영’ 역을 맡았다. 근래 개봉된 중국영화들 가운데 최고의 흥행 성적을 기록한 『색, 계』(色, 戒, 2007)는 어떤가. 감독은 ‘이안’이고, ‘양조위, 탕웨이/탕유, 조안 첸Joan Chen, 왕리홍’ 등이 주연을 담당하였다. 또 『말할 수 없는 비밀』(不能說的秘密, 2007)의 감독은 ‘주걸륜’이고, ‘주걸륜(상륜), 계륜미(샤오위), 황추생(상륜 아버지), 증개현(청의)’ 등이 출연하였다. 『황후花』(滿城盡帶黃金甲, 2006)의 감독은 ‘장이모우’, 원작은 ‘차오위/조우’이며, ‘주윤발(황제), 공리(황후), 주걸륜(원걸 왕자), 킨 킨지에/Qin Junjie(원성 왕자), 리 만/Man Li(궁녀 선), 유엽(원상 왕자), 니 다홍/Dahong Ni(황실 주치의)’ 등이 출연하였다.”(양세욱 2009b: 199) 최근 일부 고유명사가 방언음으로 도입되면서 양상은 조금 더 복잡해지고 있다. “홍콩의 거부인 리카싱(李嘉誠)과 그가 2002년 北京에 설립한 청쿵(장강)상학원(CKGSB)” 등의 기사가 그 한 사례이다. 방언 표기를 허용한다면, 그 범위를 둘러싼 논쟁과 합의가 불가피하다.

35) 가령, ‘제17회 LG배 세계기왕전’ 32강전 소식을 전한 『조선일보』(2012/06/19) 기사에서 “두 차례 LG배를 제패했던 이세돌은 숙적孔제(孔杰)를 따돌리고 한국 대승 행진의 대미를 장식했다”고 적고, 바로 위 사진 해설에서는 “이세돌 9단(오른쪽)이 중국의 공걸 선수와 대국하고 있다”고 적었다. 또 『조선일보』(2014/03/31)는 “한자문맹 벗어나자”는 기획기사 연재 [8] 한자 원음주의 표기 혼란에서 “어느 대학생의 질문 ‘북경만 가시고 베이징은 안 가세요’라는 제목으로 “한자 고유명사 표기의 원음주의에 대한 비판도 계속 나오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얼마나 될 것인가. 국립국어원의 중국어 표기법 원칙을 비판하고 새롭게 제안된 10여 종의 표기법들은 이런 혼란의 반영이면서 한편으로는 혼란을 더욱 확산시키고 있기도 하다.³⁶⁾

중국어 고유명사 표기를 둘러싼 이러한 난맥상은 한자음과 중국어 원음이 공존하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특수한 관계에서 비롯되었다. 고유명사 표기에서 드러난 일관성 부족은 중-한 차용어 표기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우선, 하나의 차용어에 대해 한자음과 중국어 원음이 함께 사용되고 있다. ‘春節’은 ‘춘절’ 또는 ‘춘지에’로, ‘八十後·九十後’는 각각 ‘팔십후·구십후’ 또는 ‘바링허우·주링허우’로, ‘釣魚臺’는 ‘조어대’ 또는 ‘다오위타이’로, ‘銀聯’은 ‘은련’ 또는 ‘인련’로 표기되어 사용되고 있다. 하나의 차용어에 대해 한자음과 중국어 원음이 함께 사용되면서 동일한 형태소를 때로는 한자음으로, 때로는 중국어 원음으로 표기하는 혼란이 발생하기도 한다. 가령, 최근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遊客’에서 원음을 차용한 ‘유커’가 중국인 관광객을 지칭하는 용어로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한편, 2013년 10월에 개정된 중국 관광법인 ‘旅遊法’은 한자음 그대로 ‘여유법’으로 불리고 있다. 또 ‘國慶節’과 ‘勞動節’의 ‘節’은 한자음 ‘-절’로 표기되지만, ‘春節’의 ‘節’은 중국어 원음인 ‘-지에’로 표기되는 일이 많다.

둘째, 중국어 원음으로 표기되는 차용어도 복수의 표기가 함께 사용되고 있다. 물론 이전에도 ‘功夫’를 ‘쿵후’와 ‘쿵푸’ 두 가지로 표기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으나, 원음으로 표기되는 중국어 차용어에 대한 복수 표기는 최근 급증하고 있다. ‘遊客’는 ‘유커’가 아니라 ‘요우커’로 표기되기도 한다.³⁷⁾ 또 ‘關係’는 ‘관시’ 또는 ‘판시’로, ‘高考’는 ‘가오카오’ 또는 ‘까오카오’로, ‘九十後’는 ‘주링허우’ 또는 ‘지우링허우’로, 중국 정부의 대외 중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인 ‘國家漢語國際推廣領導小組辦公室(국가한어국제추광영도소조관공실)’(이전 명칭은 國家對外漢語教學領導小組辦公室)의 줄임말인 ‘漢辦’은 ‘한반’ 또는 ‘한뻐’으로 표기되고 있다. 동일한 중-한 차용어에 복수의 원음 표기가 사용되고 있는 이유는 국립국어원의 ‘중국어 표기법’을 실수나 고의로 지키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셋째, 중국어 원음을 잘못 표기하는 경우도 많다. ‘紅包’를 ‘홍바오’라고 표기하거나 창업주의 2세를 의미하는 ‘紅二代’를 ‘홍얼다이’로 표기하는 등 단순한 실수로 보이는 사례도 있다.³⁸⁾ 그러나 대부분은 「漢語拼音方案」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에 빚어지는 오류로 보인다. 「조선일보」(2015/02/17)는 최근 중국에서 ‘키지양롱(Qijianglong)’이라는 공룡이 발견되었다는 기사를 싣고 있다.³⁹⁾ 그러나 이 공룡의 중국어 표기는 ‘綦江龍’으로, ‘치장롱’ 또는 ‘치지양롱’

36) 이상의 기술은 양세욱(2009b: 199~200)을 수정, 인용하였다.

37) 국립국어원의 「외래어 표기법」(1986)에서는 원음과 괴리가 있음에도 한어병음 ‘you’를 ‘유’로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요우커’는 원음과 가깝게 표기하려는 의도의 산물이다. 「매일경제신문」은 일관되게 ‘유커’로 표기하고 있다. 「매일경제신문」(2014/01/30)는 “한국 방문 유커2.0시대”라는 제목으로, 「매일경제신문」(2014/05/01)는 “황금연휴 특수 유커가 불지핀다”라는 제목으로, 「매일경제신문」(2014/05/09)는 “유커가 휩쓴 황금연휴 유통가”라는 제목으로 각각 관련 기사를 싣고 있다. 지난해까지 「매일경제신문」에서만 일관되게 ‘유커’로 표기하던 것이 올해 들어서는 「조선일보」를 비롯한 대부분의 일간지들에서 ‘유커’ 표기가 ‘요우커’ 표기를 압도하고 있다.

38) 「중앙일보」(2014/02/08)는 “돈 귀신으로 변질된 홍바오(紅包·중국의 세뱃돈)”이라는 제목으로, “중국의 ‘홍바오(紅包)’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을 거다”로 시작하는 논평을 싣고 있다. 또 서울신문(2013/10/17)을 비롯한 복수의 언론들에 ‘홍얼다이’라는 표기가 등장한다.

39) 이 기사는 「조선일보」의 인기 칼럼인 ‘최재천의 자연과 문화’의 일부이다.

으로 표기되어야 마땅하다. ‘遊客’를 ‘요우커’로, ‘優酷’를 ‘요우쿠’로 표기한 것 등도 『漢語拼音方案』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에 빚어지는 오류 사례에 해당된다.⁴⁰⁾ 이런 오류는 고유명사 표기에서도 흔히 발견된다. 첼리스트 ‘王健’(Wang Jian)을 ‘지안왕’으로, 피아니스트 ‘李雲迪’(Li Yundi)을 ‘윤디리’로, 여성 피아니스트 ‘王羽佳’(Wang Yujia)를 ‘유자왕’으로, 배드민턴 국가대표인 ‘蔡贇’(Cai Yun)을 ‘카이윤’으로,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인 ‘范可欣’(Fan Kexin)을 ‘판캐신’으로, 중국 성인 ‘陳’(Chen)을 “첸”으로 잘못 표기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된다.

넷째, 과도한 한자음 표기나 과도한 중국어 원음 표기가 또 다른 문제들을 야기하기도 한다. ‘汽車’를 ‘기차’로 표기한 것이 전자의 예라면, ‘春節聯歡晚會’를 ‘춘제렌환완후이’로 표기하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을 대대적으로 단속하는 것을 의미하는 ‘靖頻專案’을 ‘징핀쥘안’으로 표기하는 것은 후자의 예이다.⁴¹⁾ 이러한 과도한 한자음 표기 또는 중국어 원음 표기는 의미 전달에 혼란을 초래하거나 의미 전달 자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4. 맺음말

한국과 중국은 두 천년기를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인 언어접촉을 유지하였다. 계통이 전혀 다른 두 언어의 긴 언어접촉의 역사는 중-한 차용어라는 化石을 통해 그 흔적을 남기고 있다. 언어학자가 차용어를 통해 언어접촉의 양상을 복원하는 일은 지질학자가 퇴적물 속에 박혀 있는 화석을 발굴하여 지층의 형성 과정과 연대를 가늠하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한국어는 몽골어·일본어·영어의 영향을 받았지만, 한국어의 전 역사에서 중국어만큼 지속적으로, 압도적인 영향을 미친 언어는 없었다. 한-중 수교를 전후한 시점을 계기로, 중국과의 직접적인 교류와 언론 및 출판물 매개로 하는 간접적인 교류의 급증으로 중-한 언어접촉과 어휘 차용은 한-중 수교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5종 일간지의 기사에서 사용된 중국어 차용어의 표기 양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해방 이후에 19세기 말부터 반세기 이상 지속되었던 어휘 차용의 원천이 일본어에서 영어로 변화되었듯이, 해방 이후부터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오고 있는 영어 일본어의 어휘 차용이 두 천년기 동안 그래왔듯이 다시 중국어로 복원되는 전환기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40) 『조선일보』(2015/04/14)는 “삼켜? 中 미디어 큰손들, 한국 콘텐츠기업에 군침”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SM C&C는 중국 동영상 플랫폼 사업자 요우쿠투도우와 함께 예능 프로그램인 ‘슈퍼주니어M의 게스트하우스’를 공동 제작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41) 『동아일보』(2014/04/22)는 같은 달 20일 개막한 ‘2014 오토차이나’(베이징 모터쇼)를 소개하는 기사에서 ‘베이징기차’의 ‘E150 택시’에 대해 소개하였다. 또 연합뉴스(2014/02/23)을 비롯한 복수의 언론사들은 올해 한국인 연예인들이 초청받은 ‘春節聯歡晚會’를 보도하면서 ‘춘제렌환완후이’ 또는 ‘춘완후이’로 표기하였으며, 『조선일보』(2015/02/17)은 보이스피싱 관련 뉴스를 보도하면서 ‘징핀쥘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영어가 차용어의 원천이던 지난 세기에 한국어는 영어 어휘의 차용 과정에서 큰 혼란을 경험해야 했다. 원칙과 방향이 부재한 상태에서 직면한 영어 차용어의 압도적인 위세 앞에서 한국어는 표기의 혼돈을 거듭해 왔으며, 그 결과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造語 능력을 거의 상실한 상태에 이르고 말았다. 어휘 차용의 원천이 영어에서 중국어로 복원되는 새로운 국면에서 중-한 언어접촉과 어휘 차용의 양상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논의하는 의미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종석(1999), 『감염된 언어』, 개마고원.
- 김건환(2003), 『언어접촉, 문화교류 그리고 언어차용과 시대정신』, 한국문화사.
- 김완진(1970), 「이른 시기에 있어서의 한중언어접촉의 일반에 대하여」, 『어학연구』, 제6-1집, 서울대 어학연구소.
- (1991), 「한국어 속의 이른 시기의 중국어 차용어」, 『알타이학보』, 제3집, 한국알타이학회.
- 박병채(1989), 『국어발달사』, 세영사.
- 박영섭(1995), 『국어한자어휘론』, 박이정출판사.
- 박종한·양세욱·김석영(2012), 『중국어의 비밀』, 궁리.
- 심재기(2000), 『국어어휘론』, 집문당.
- 양세욱(2006), 「借用語와 현대중국어 어휘체계의 多元性」, 『중국문학』, 제48집, 한국중국어문학회.
- (2009a), 「근대 번역어와 중국어 어휘체계의 혁신」, 『코기토』, 제65집,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 (2009b), 「‘다오위타이’와 ‘남시터국빈관’ 사이 - 중국어 고유명사 한글표기의 현황과 쟁점」, 『중국어문학논집』, 제57집, 중국어문학연구회.
- (2009c), 「‘茶’에서 ‘tea’까지: ‘茶’類 어휘의 언어분포」, 『중국문학』, 제61집, 한국중국어문학회.
- (2009d), 「음식 관련 중국어 차용어의 語源: ‘춘장·짬뽕·티’를 중심으로」, 『중국학보』, 제60집, 한국중국어학회.
- (2011), 『짜장면뎐(傳) : 시대를 풍미한 검은 중독의 문화사』, 프로네시스.
- (2012), 「동아시아의 번역된 근대 : ‘개인’과 ‘사회’의 번역과 수용」, 『인간·환경·미래』, 제9집, 인간환경미래연구원.
- (2013), 「한국어 읽은 중국: 중국 관련 국내 출판의 변화(1992~2012)」, 『중국학보』, 제68집, 한국중국어학회.
- 엄익상(1997), 「중국 음식명의 음운학적 분석」, 『중국어문논총』, 제13집, 중국어문학연구회.
- (2006), 「한국말 속의 중국말과 중국말 속의 한국말」, 『진리자유』, 제62집, 연세대학교출판부.
- 이기문(1965), 「근세 중국어 차용에 대하여」, 『아세아연구』, 제18집,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 (1972), 『국어사개설』, 탑출판사.
- (1991), 『국어어휘사연구』, 동아출판사.
- 이익섭·이상억·채 완(1997), 『한국의 언어』, 신구문화사.
- 이한섭(2014), 『일본어에서 온 우리말사전』, 고려대학교출판부.
- 이현규(1993), 「차용어에 의한 국어 변화 연구」, 『민족문화논총』, 제14집,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조선일보(2013/10/05), 「사라지는 꼭두 되살려낸 ‘꼭두 엄마」, 조선일보사.

조세용(1991), 『한자어계 귀화어 연구』, 고대민족문화연구소출판부.

최영애(1991), 「中國古代音韻學에서 본 韓國語語源問題」. [김용옥(1991: 287-316), 『도올논문집』, 통나무]에 재수록.

Liu, Lydia H.(1995), *Translingual Practice: Literature, National Culture, and Translated Modernity-China, 1900~1937*,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민정기(2005), 『언어횡단적 실천』, 소명출판]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한글	한국어, 중국어, 언어접촉, 중-한 언어접촉, 차용어, 일간지
	영문	Korean, Chinese, language contact, Sino-Korean Language Contact, loan-words, daily newspaper
<p style="text-align: center;">New Phase of Sino-Korean Language Contact and Lown-Words</p> <p style="text-align: right;">Yang, Se-Uk</p> <p>本文의 目的是 分析 最近 3 年 韩国 5 种 新闻报道 之 基础上, 介绍 韩中 两国 建交 之后 韩语 里面 使用的 汉语 借词 的现状, 通过 将 这些 借词 和 以前 的 汉语 借词 进行 比较, 分析 说明 这些 汉语 借词 的特征. 韩中 两国 政府 正式 建立起 外交 关系, 意味着 断绝 了 将近 一个 世纪 的 外交 关系 重新 开始. 以 韩中 两国 的 建交 为 契机, 两国 的 政治·经济·社会·文化 等 各 领域 的 交流 开始 急速 增加. 随着 韩中 交流 的 扩大, 大量 新 的 汉语 借词 开始 进入 韩语 当中. 韩国 和 中国 维持 了 超过 两 千年 的 长期 的 语言 接触. 属于 不同 语系 的 两种 语言 在 如此 长 的 时间 内 互相 影响, 这 是在 世界 语言 史上 都 很少 见 的 独特 现象. 近代 以前 对于 韩语 产生 影响 的 汉语 借词 大部分 是 通过 文献, 特别 是 以 四书五经 为 代表 的 儒家 经典 进入 韩语 当中, 但是 韩中 建交 以后 进入 韩语 里 的 汉语 借词 则 在 很多 方面 上 呈现出 和 以前 的 借词 不同 的特征. 韩国 和 中国 虽然 自古以来 一直 交流 不断, 但是 像 最近 一样 的 大规模 的 直接 交流 还是 前所未 有 的.</p>		
저 자 인적사항	성 명	양세욱 / 梁世旭 / Yang, Se-Uk
	소 속	인제대학교 중국학부
	Em@il	dhamma@inje.ac.kr
	주 소	(생략)
	전화번호	(생략)
논 문 작성일시	투 고 일	2015년 5월 24일
	심 사 일	2015년 6월 5일
	게재확정일	2015년 6월 22일